묘음보살의 현일채색신 삼매

〈現一切色身〉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㊵ 묘음보살의 자유자재

"화덕이여, 이 묘음보살은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해 주는 자이니라. 이 묘음보살이 갖가지로 몸을 변화시켜 나타내어 이 사바세계 안에서 모든 중생들에 이 경전을 설하지만, 그 신통, 변화, 지혜에 있어서는 아무런 감소도 없느니라. 이 보살이 갖가지 지혜로 사바세계를 환히 비추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며, 시방의 항하 모래알 수의 세계에서도 또한 그렇게 하느니라.

만약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며, 보살의 몸으로 구도할 이에게는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며,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설을 설해 주나니,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제도할 바를 따라서 몸을 나타내며, 나아가 열반으로써 제도할 이에게는 열반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화덕이여, 묘음보살마하살의 큰 신통과 지혜의 힘을 성취한 일이 대개 이러하니라."

그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묘음보살이 깊이 선근 심었음을 알겠나이다. 그러하오나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그 무슨 삼매에 머물러 있기에 능히 이와 같이 온갖 곳에 몸을 바꾸어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화덕보살 향하여 이르셨다.

"선남자야, 그 삼매의 이름은 현일체색신(現一切色身)이니라. 묘음보살이 이 삼매에 들어 있으므로 능히 이렇게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이롭게 하느니라."

이 묘음보살품 설하실 때 묘음보살을 따라 함께 왔던 8만 4천 보살들이 모두 다 현일체색신삼매 얻었으며, 이 사바세계의 한량없는 보살들도 또한 이 삼매와 다라니를 얻었다.

그때 묘음보살마하살이 석가모니부처님과 다보부처님의 탑에 공양을 모두 마치고 본토로 돌아갔다. 지나가는 국토마다 여섯 가지의 진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보배 연꽃의 비가 내리고 백천만억의 온갖 음악 소리가 일어났다. 본국에 이르자 8만 4천 보살에게 둘러싸여 정화수왕지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을 친견하고 다보부처님의 탑을 찾아 예배하고 공양하였습니다. 또 문수사리법왕자보살도 만났으며, 약왕보살, 득근정진력보살, 용시보살 등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8만 4천 보살들로 하여금 현일체색신(現一切色身)삼매를 얻게 하였습니다."

이 묘음보살내왕품(妙音菩薩來往品)을 설할 때에 4만 2천 천자(天子)가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었고, 화덕보살은 법화삼매(法華三昧)를 얻었다.

〈법화경〉이나 〈화엄경〉에 등장하는 보살들은 모두 부처님 역할을 대행하는 대비의 화신들이다. 이 보살들의 활동의 특징은 삼매에 들어 중생들을 위한 요익행(饒益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장에서 묘음보살이 몸을 자유자재하게 변화시켜 나타나는 '현일체색신삼매'를 얻었다고 밝히고 있다. 관세음보살의 32응신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다. 더구나 열반과 같은 법을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는 중생을 구제하려는 대비원력이 일체 고통을 여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 고난에 처해 괴로워하는 중생들에게 불·보살의 가피(加被)와 은혜가 미쳐 안락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앙이다. 인본주의(人本主義)와 자력수행을 내세우는 불교에서 초기 소승불교에서는 교리의 이해에 치중하여 번뇌를 끊음에만 몰두 불·보살에 대한 신앙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후기 대승불교에 와서 경전을 수지 독송과 함께 암송하는 수행법과 불·보살 명호를 부르는 염불 수행법 등이 나오고부터 예경의례가 생기고 특정 불·보살에 대한 신앙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신라시대부터 특히 관음신앙이 널리 민간에 유포되었는데 〈법화경〉 '관음보살보문품'이 관음신앙의 근거가 된다. 이를 의지하여 관음예찬문 등도 지어졌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계율, '규제' 넘어선 바른 행동 내면화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㊵ 의무론과 불교윤리

누구나 어린 시절에 어른들로부터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수시로 바뀌지만, 어른들은 늘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덕담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부르짖는 공리주의의 문제점은 '이기적인 개인이 공익을 위해 자기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가'이다. 이론적으로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이익은 희생되어야 하지만, 이기적인 개인은 '왜 나만 손해를 보아야 하는지' 의아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론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국의 철학자인 헨리 시지윅(Henry Sidgwick)은 칸트 윤리학으로부터 직관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게 된다. 또 보편적 행복이라는 실질적 원리와 함께 몇 가지 형식적 원리를 전제한다. 즉 공정과 평등의 원리인 정의, 합리적 자기애의 원리인 타산, 모든 사람의 선을 지향하는 박애이다. 그러나 타산의 원리와 박애의 원리 사이에는 언제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기적인 개인이 현재의 작은 행복보다 미래의 좀 더 큰 행복, 자신의 행복보다 타인의 좀 더 큰 행복을 추구할 것인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딜레마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 때로 개인의 행복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공리주의와 달리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에 의해 주창된 의무론은 규범론적 윤리체계로 행위 자체의 도덕적 속성으로 모든 규범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다시 말해 어떤 종류의 행동이 언제나 어떤 종류의 환경에서 그 행동의 결과와 상관없이 옳거나 그르다고 주장한다. 이는 행위 자체의 속성을 따지는 것으로 동기론적 윤리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무론에서는 의무, 즉 의로운 삶과 합리적 이성을 중시하고 이상주의적 경향을 띤다.

공리주의에서의 행복은 행복한 삶과 감각적 경험을 중시하고 현실주의적 경향을 띠기 때문에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불교에서는 감각적 쾌락의 덧없음을 설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목표인 열반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한다. 불교, 특히 대승불교에 공리주의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보살도(菩薩道)는 의무론적 측면이 강하다. 모든 중생을 제도(濟度)하겠다는 보살의 서원은 순수한 동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며, 그 서원은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살은 자신 자신의 깨달음보다는 모든 중생의 깨달음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의 온갖 고난을 기꺼이 감내한다.

어떤 이는 의무론을 형식적이라고 비판하듯이, 불교의 계율도 형식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교도의 계율은 단순히 외면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라기보다 바람직한 행동을 내면화시키는 것이다. 스스로 계율을 받아서 실천할 것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의 실천만으로는 내면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행동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질책과 격려도 필요하다. 어떤 이는 의무론을 인간의 경향성과 행복을 도외시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비판한다.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도 불교도의 행복을 도외시한 채 보살의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 즉 보편적 행복을 추구한다면 자기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아울러 보살의 의무는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며, 불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그 이상을 향해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⑯ 끝없이 이어지는 업보

업 짓는 주체 '의지'는 곧 마음

9. 업의 주체는 자아가 아니라 아뢰야식이다.

불자 여러분! 업의 주체는 자아가 아닙니다. 그러면 업을 짓게 하는 주체는 무엇일까요? 〈성실론〉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곧 모든 업의 주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법의 근본이니 마음이 존귀하고 마음이 이끄는 바라, 마음이 선·악을 생각하면 곧 입[口]이 말하고, 몸[身]이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업이 무겁다는 것을 알라. 또 뜻[意]에 차별이 있으므로 신업·구업에 상·중·하와 같은 차별이 있는 것이다. 마음이 떠나면 신업과 구업은 없는 것이다."고 하여 신업과 구업은 의업이 이끄는 대로 따라 생멸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모든 업의 주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업을 짓는 주체인 '의지'란 곧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심(心), 의(意), 식(識)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음에는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 등 전오식(前五識)의 마음과 제6 의식, 제7말나식, 제8아뢰야식 등의 여덟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보의 주체인 마음은 제8아뢰야식의 마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이후에 불교 교단 내에서 가장 논의의 초점이 된 것은 바로 '업'과 '무아'가 상충 되지 않게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초기불교시대와 부파불교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어 갔습니다.

특히 부파불교 시대가 되었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의 주체이지만 자아는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비달마의 논사들은 궁생사온(窮生死蘊), 유분식(有分識), 세심(細心), 보특가라(補特伽羅) 등의 여러 가지 업의 주체 개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업의 주체이지만 자아가 아니면서 아트만과 다른 '아뢰야식'이란 개념을 등장시켰습니다.

10. 아뢰야식이란 무엇인가?

불자 여러분! 아뢰야식이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8아뢰야식은 심층의 마음이기 때문에 표층 마음인 분별의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무명 훈습에 의한 아뢰야식은 일반 범부와 연각·성문까지도 능히 알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아뢰야식은 훈습된 모든 종자를 갖추고 있는 궁극적인 마음의 근원이라고 해서 심왕(心王)이라 불립니다.

〈성유식론〉에서는 아뢰야식에 대해서 만물을 인식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을 담고 있다고 해서 능장(能藏)이라고 하고, 다른 일곱 가지 식(識)에 의하여 판단된 모든 정보를 훈습하고 있다고 해서 소장(所藏)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아뢰야식은 무시이래부터 오면서 항상 상주하기 때문에 제7말나식이 진실한 자아인줄 알고 집착하게 만들고 오도되는 마음이라는 뜻에서 집장(執藏)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유식론〉에서는 아뢰야식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불성(佛性) 그리고 여래장(如來藏)과 아뢰야식은 무엇이 다를까요? 불성(佛性)은 범어 buddha-dhātu의 번역으로 '여래성(如來性)' 혹은 '각성(覺性)'이라고도 합니다. 즉 '불타의 본성(本性)'이라는 뜻입니다. 붓다가 될 가능성 인성(因性), 종자(種子) 혹은 미오(迷悟)에 의하여 변하는 일이 없이 본래 갖추어진 성품(性品)을 의미합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이와 같은 불성 있기 때문에 장차 성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불성은 곧 불(佛)의 원인(原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불성을 '여래(如來)의 태아(胎兒)(tathāgata-garbha)' 즉 '여래장(如來藏)'이라고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성·여래장'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여래(佛)가 될 수 있는 종자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 속에 있는 '여래의 태아'라고 해서 여래장이라고 불리고, 중생에게 갖춰진 '불의 인(因)'이라고 해서 '불성(佛性)'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